

사순제 4주일

기도서 P. 266 C해

- 제1독서(요 수 5, 9, 10-12)
- 제2독서(코린후 5, 17-21)
- 복음(루 까 15, 11-32)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론



□ 사순 4주일

탕자의 자유

서 석 구 신부

오늘 복음말씀(루까 15, 11-32)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극적인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나는 신약성경중에서 오늘 복음을 제일 좋아한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타락할 수 있는 조건, 회개한 아들의 모습,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 정말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말씀이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그러나 사순절이니만큼 회개한 아들에 대하여 묵상하고자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갖고 싶어한다. 그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오늘 성경의 탕자도 자유로운 생활을 떠났다. 마음껏 돈을 뿌려보고, 세상구경도 했다. 향락을 즐겨 보았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야만 했다. 결국 자유를 누리고 모든것을 얻고자 했지만 가던길을 되돌려야만 했다. 하느님은 어떤 인간에게도 자유를 속박하지는 않는다. 설명 본인의 뜻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할 늪속에까지 빠졌다 할지라도 말이다. 최후에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자기의 의지력으로 잘못을 깨닫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때까지도 버려 두실 때가 있다.

오늘 탕자도 결국 배가 고파 죽음에까지 도달해서야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찾아 왔다. 이제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어쩔수 없는 상황을 체험했다. 자기가 굶어 죽는것 보다는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 때는 사순절이다.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 하느님도 그 자유를 속박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허용 세월을 보내며 탕자와 같이 폐인이 될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탕자의 자유를 누릴것인가? 의인의 자유를 누릴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가 택한 자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느님은 그 책임을 저주시지는 않는다. 사순절에 외치노니 죄인들이여 회개하자. 회개할 수 있는 자유가 그대들에게 주어졌으니 말이다.

(함열 천주교회 주임신부)



서울이 얼마나 넓으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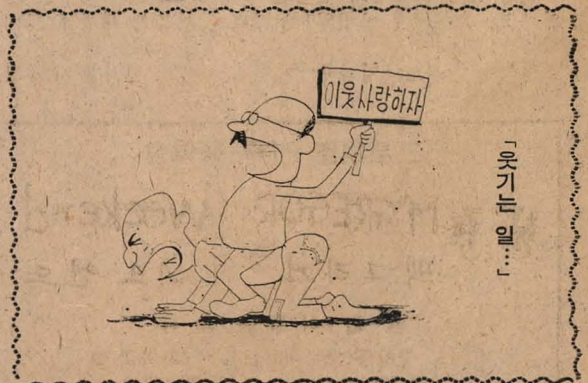
서울이 좋다고 무작정 상경(上京)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76년도에 2천여명, 77년도에 3천여명, 78년도에 4천여명, 79년도에는 7천여명으로 3년동안에 그 수가 3.5배(350%)로 늘어났다.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농어촌의 가난한 청소년보다도 중소도시의 중산층 이상의 청소년이 더 많다는 것이다.

한 때(1950년대) 앵두나무 우물가의 동네 처녀들이 바람이 나 말만 들던 서울로 단복점을 쫓다는 유행가가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했었다. 한 밀천(금송아지) 잡겠다고 서울로 서울로 얼마나 몰려들었기에 "서울은 만원이야"라는 소설 제목이 유행어로 등장했겠는가.

땅은 항상 정직한데도, 그 땅이 선량하기만한 이 땅의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매캐한 매연으로 하늘조차 거무더러운 서울에서 먹을것을 찾겠다고,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선조들의 피땀으로 짊어졌던 그 땅을 그렇게도 쉽게 내던져 버렸던 것이다. 있는 사람들은 자식은 서울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옛말을 따라 두 집 살림을 차렸다. 이래저래 한 나라의 부(富)는 서울로 몰려 지방자치체까지도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는 비극 아닌 비극을 그리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의 가솔원인까지도 <생활고>가 아닌 <막연한 도시동경, 허영심, 불량교우, 학교문제> 등으로 바뀌었다 한다. 바꾸어 표현하면 가치관의 빈곤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잘못된 제도악의 악순환의 결과이다. 물질만능이 터질듯한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실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은 방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도대체 그 대책은 무어란 말인가?

숲 정이 산책



□ 영세 감상문

주님,
정말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 프란치스코

오늘은 24일, 죄많은 인간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는 간밤에 여태까지 생각때문에 발잠을 설쳤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 하시는가? 계시다면 이 죄많은 인간을 정말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침묵 뿐이었습니

다. 교리반에 있으면서 해온 아침저녁 기도생활, 그저 습관적으로 외우는 기도문, 이때 가지고 어떻게 영세를 받아 생각을 해보니 답답하고 막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강렬하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는 말로만 이제까지 주님을 찾았고, 타성적으로 아침 저녁 기도를 드리면서도 동료들을 시기 질투하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진실로 아버님을 찬미하고 아버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고 나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 머리에 있는 예수님의 상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입을 꼭 다무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시고 계시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웃으시는걸 보니 저를 용서해 주신다 이거죠? 그렇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사야 1장 18절 “너의 죄가 진홍색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한 말씀을 생각하며, 비록 교도소안이지만 현웃을 깨끗이 빨아 입고 영혼과 육신을 다하여 공경할 것을 믿으며 기다리던 영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떨렸습니다. 신부님께서 “마귀를 쫓겠습니까?”고 물으실때에 나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실때 눈물이 자꾸 흐르며 입으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로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착실한 주님의 용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계속 하느님안에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절규하였습니다.

이 예식을 마련하여 주신 신부님,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과, 특히 차동주 부장님과 전동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 1월 24일 저녁

※ 이 글은 지난 1월 전주 교도소에서 새로이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난 김 프란치스코 형제의 영세 수기이다. 전동 본당 교우들의 끈질긴 노력과 교도소 당국(소장 최건식, 교무과장 장철형)의 배려가 이들을 새롭게 나게 한 큰 힘이였다.

전동의 김병엽·김기수 두 사제가 성세 성사를 주례했다. (편집자)

□ 단상 ⑩

생각하는 갈대

최 규 환(알베르토)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곧 자기생존과 종족보존의 본능적인 욕망이다.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을 완전히 채울 수도 없고, 또 이 욕망을 채웠다해도 역시 완전한 만족을 갖지 못하는채 불완전한 상태속에 남아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될때 인간은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를 갖게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가치있는 것인가?
왜 죽어야 하는가?
영혼은 있는 것인가?

이와같은 인생이 갖는 근원적인 심오한 회의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고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인간이 갖는 절대적인 한계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였다.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의 위대성을 말한 것이요, 갈대라 함은 인간이 미약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갈대라 함은 증기의 불 한 방울로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는 말이며,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도 모기 한마리로 인하여 죽을 수 밖에 없었다는 인간의 나약함을 말해주고 있다. 생각한다는 말은 인간의 한계상황을 초월한다는 말이며—영생을 의미하고—인간 이성의 미약함을 말하기도 한다.

피정의 밤에

유 종 소(베드로)

질혹과도 같이 어두운 이 밤에
금단의 열매를 침식했던 양심이
말없이 명멸하는 촉광 앞에
못내 파멸지한 고개를 떨군다.

아버지의 사랑이 크셨기에
그 은총을 저버렸고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인자하신 그 얼굴을 잊었다.

이제 당신 제단에 엎드려
그 사랑을 뜨겁게 열망하오니
마지막 희망이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이, 여기서 끌어보소서.

(북자성당 사도회 고문)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성인·아동용 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율리안나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 유명강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⑥ 0 9 2 1

범 띠도(떡배)·이 마리아



犬憲(개헌) ≡ 改憲

—정치인들은 소신을 가져야—

김 병 엽 신부

유치원 자모들과 관광여행을 한적이 있었다. 버스는 꾸불 꾸불한 산모퉁이를 뚫 때마다 이리 저리 흔들리고 있었고, 길 옆에 세워진 가로수도 수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오락이 시작 되었다. 누구든지 나와서 노래를 하든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기로 하였다. 한 자모가 싱글 벵글 웃더니 사랑방조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바보와 더 바보가 시험을 보러 갔드래요.” “그래서?” 한 자모의 대꾸였다. “아이고 왜 이런데여 조용히 이야기 소리나 들지들...” “그런데 시험지를 받고 보니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문제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의 이름이 무엇이나고 나왔드랑만요. 바보가 생각다 못해 잠뱅이 골마리에 숨겨둔 컨닝용 쪽지를 보고 썼는데, 더 바보가 뒤에 앉아서 보니까 바보가 잠뱅이 골마리에서 뭘 보고 쓰거든요. 엇다 모르겠다 하고 자기도 잠뱅이의 골마리를 보니까 「쌍방술」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옳지 현재 대통령은 「쌍방술」이로구나 하고 좋아라고 하였드래요. 다음 문제를 보니 현재 대통령은 몇대인가? 알도리가 없어서 멍하고 있는데 앞에 바보가 또 잠뱅이 골마리를 보고 쓰고 있거든요 옳지 나도 또 보자 하고 시험관 몰래 잠뱅이 골마리를 까고 보니까 90cm. 옳지, 이거겠지. 90대 대통령.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난 뒤, 밖에 나와서 두 문제는 자신 있게 맞았다고 좋아 하드래요. 남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던 되나요. 주관 있게 행동하세요야지...” 짹짹...

바다의 망둥이가 뛰니까 전라도 빗자루도 된다는 말이 있다. 요사이 신문을 보면 물가고와 개헌 문제, 극악한 사회상이 눈에 띄인다. 그중에도 개헌문제를 놓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 눈썹이 부실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개헌은 반드시 하여야 하지만, 개헌에 대한 그러한 소신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진주 부르짖었어야 옳았다.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기 보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하여 시대가 변하니까 자기의 소신도 긍지도 버리고 이리 저리 뒹군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인가? 이런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지도자가 될들 뭐가 잘 될리가 있겠는가?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없는 자들이 아무리 개헌을 열번 백번 하여 봤자 그 改憲은 犬憲(개헌)에 불과 할것이다. 다른이가 개헌 개헌 하니깐, 나도 개헌 개헌을 부르짖는 것은 더 바보가 그르치는 그 이상의 오류를 범할 것이다.

(전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요심이 (346) 김병오

경제장관되어
물가한번 못올려도
바보입니다

정권을 잡아서
헌법한번 뜯어고치지
못해도 바보입니다

권력의 그늘에서
부정축재 못해도
바보입니다

대학교수되어
TV 한번 못나오도
바보입니다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이시계점 옆)
전화 ②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결 (축) 혼

정인홍 씨 동생 정 인 군
노명준 씨 장녀 노인숙(마텔다)양

일시 : 1980년 3월 16일 (화) 11시 30분
장소 : 전주 중앙 천주교회
주례 : 문정현(밭도로메오) 신부님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갑 축하 미사

박 윤 규(요셉)
전 희 순(골롬바)

위 양친의 회갑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감사미사를 드리하고자 하오니 교우들의 기도와 참여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열
전화 ② 8188 (자 ②0369)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역전 앞
최윤경 (유리안나)
전 화 : ② 8653

일시 : 1980년 3월 19일 11시
장소 : 김제읍 순동리 한우물 자택

아들 : 박진량(신부)
박진홍
박진민
딸 : 박진녀(수녀)
사위 : 이길연
양만규
서석기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여자 전 모임...16일 오후 2시, 중앙성당 강당에서
2. 레지오 마리에 교미시움 월례회...16일 오후 1시 30분, 숲정이 성당에서
3. J.O.C 훈련회...22일 오후 2시~23일 가톨릭 센터에서
4. 전동성당 9일기도...3월 20일~29일(23일 제외), 치명자산 6시미사.

□ 본교구 교구장 김재덕 주교님, 오는 3월 19일로 성서 7주년 뜻깊은 주교님의 성서 기념일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하심과 성령의 풍부한 돌보심을 기원합니다.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문성태
보좌 신부 정태형
사도 회장 김현구

1. 성모회: 16일<월> 강당, 공식미사후
2. 가정방문: 서노송동 18일<화> 오후2시 새 영세자, 전입해 오신분은 사무실이나 구역장, 반장에게 집주소나 약도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3월대회: 22일 오후2시~23일 오후6시 대상-중학생, 장소-강당
4. 여자 전체 전모임: 16일<월> 오후2시 강당
5. 청년 성가대 치명자산 야외 십자가의 길 16일<월> 오후2시까지 성당 집합
6. 부활 판공성사 일정: 25일<화>-29일<토> 오후3시~8시까지(별지 참조)
7. 감사예물: 익명 2만원, 감사합니다
8. 교무금 월별로 신입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296,880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춘근
사도 회장 박춘근

1. 공소 판공성사 일정: 내일부터, 17일-신원리공소, 18일-왕정리공소, 20일-다리리공소, 21일-황운리공소, 22일-신교리공소
2. 전신자 등록: 본당의 모든 전신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용지는 본당에서 준비한 용지를 사용하시되 통, 받을 꼭 기입하세요
3. 축! 보좌신부님 영명 19일(성 요셉 축일) 나 신부님의 전장을 위해 많은 기도 있으시기바람
4. 본당 1일 피정: 오늘 오후2시~9시까지 준비물: 성경, 목주, 성가집, 필기도구, 참가비-500원
5. 제3차 성령 세미나: 17일~22일 까지, 매일 오후2시~4시
6. 본당 대학생 모임: 17일<월> 오후6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167,210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서정오
보좌 신부 조영삼
사도 회장 양철

1. 조점오 신부님 영명축일: 19일. 축하식-오늘
2. 대학생 신입생 환영식: 신입생 여러분의 참여 바람
3. 주일학교 어린이 많이 보내주세요 교리-주일 오후2시, 미사-3시
4. 사도회 상임위원회: 23일 까지 마시고 참석하세요
5. 반석회 임시총회: 30일 25세이상 남자
6. 애령회에 관심을 가집시다 반석회-50,000원, 흥정에-10,000원 감사합니다
7. 금주판공: 20일-전당리, 25일-미산리

□ 지난주 봉헌금: 208,185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1. 부활 판공성사 22일-다가동·중앙동·교사동·태평동, 23일-완산동·화산동·기타, 24일-못보신분들 ※ 저녁미사후 참회예절과 성사
2. 제2차 사순절 본당피정 17일 오후1시30분~18일 12시 성서, 기도서, 성가집, 목주지참, 피정비-1,000원
3. 30일(주일)은 인성회 특별헌금 있습니다
4. 축! 영명: 19일 본당신부님 축하합니다 축하식-오늘 공식미사후,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람
5. 금육: 21일

□ 지난주 봉헌금: 258,815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특별헌금 모금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2. 할머니회: 공식미사후
3. 어머니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4. 성령 기도회: 수요일 오후7시30분(19일)
5. 쉼 지도자 모임: 오늘 오후3시(사제관)
6. 축! 중학생 해바라기 쉼 탄생 지도자-김영선, 의장-이상호
7.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후 있음
8. 가정방문: 18일-9반, 20일-10반 21일-11반, 22일-12반

□ 지난주 봉헌금: 116,970원 교무금: 8,500원

(숲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2. 예비자 교리: 매주<화>·<수>7시30분, 매주공식미사후
3. 미납된 신축기금 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년도 봉헌금 미납금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불판공 일정: 25일-전북2동1반, 26일-전북2동2반~5반, 27일-전북1동·태평동, 학생-매주<토>오후
6. 신축기금 내주신분: 유치원(50만원), 송호수·박남수·황의선(각5만원), 안재구·정주복·법석규 성신교장신부(각10만원), 한기호신부·이보순(각2만원) 배발바라·권의연(각1만원), 장부형(5천원), 서신동익명(3만원) ※ 노송분당 성당 신축기금: 신입총액-745,000원 현금-158,500원, 별도2일주일-104,500원 ※ 덕진분당 성당신축기금: 신입총액-792,000원 현금-77,200원

□ 지난주 봉헌금: 146,570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기수
보좌 신부 김유석
사도 회장 유석중

1. 9일기도: 3월20일~29일(23일 제외) 치명자산 6시미사-본당 새벽미사 없음
2. 춘계판공성사: 27일-전동·중앙동·경원동·다가동 28일-교동, 29일-초·중·고생, 30일-공무원, 31일-홍남·노송동, 4월1일-완산동
3. 가정방문 18일~21일-동교동·서교동·전동·중앙동·다가동
4. 예비자 교리안내: 일반-일요일공식미사후 청년·직장인-매주(수·목) 저녁미사후 중·고생-매주토요일 오후3시30분
5. 빈철푼이회 발족: 공식미사후 뜻깊은 형제들의 많은 참여를 바람
6. 글로리아 성가대: 부활성가연습-매일 저녁미사후
7. 다음주 복사: 새벽미사-박중주, ①최병래 ②이신홍 공식미사-서정오, ①박도식 ②이중두 저녁미사-김윤주, ①양현홍 ②고수창

□ 지난주 봉헌금: 323,245원

(파티마)

전화 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불판공 성사일정: 22~23일, 29~30일 김환철 부주교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2. 공소 판공일정 25일-불꽃지, 26일-두현리, 28일-삼림리
3. 청년회 피정: 2박 3일 무사히 마쳤습니다
4. 가정방문: 18일~20일
5. 유아세례: 학생미사후, 신청바람

□ 지난주 봉헌금: 80,355원 어린이헌금: 1,540원 교무금: 165,000원